

<미 연구진 “패스트푸드 햄버거·피자·부리또, 생식 계통 장애 물질 검출”>

패스트푸드가 과도한 설탕과 소금, 트랜스 지방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최근 연구로 또 하나의 유해 요소를 추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생식 계통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라리아 에드워드(Lariah Edwards) 박사는 미국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6 곳의 햄버거, 부리또, 피자를 테스트한 결과, 샘플 제품의 80% 이상에서 생식 문제와 연결된 화학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에드워드 박사 연구팀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6 곳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 도미노 피자, 타코벨, 치폴레에서 64 종의 실험 샘플을 구해 11 가지 가소성 화학 물질에 대한 식품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샘플의 80% 이상이 프탈레이트(phthalates)를 미량 함유하고 있었다. 치킨이나 치즈버거 등 육류를 포함하는 식품은 화학물질의 수치가 더 높았고 치즈 피자가 가장 낮았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식품 포장 및 장갑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생식 계통 장애와 조기 사망에 관련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의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허용기준보다 낮다. 그럼에도 에드워드 박사는 “하나의 햄버거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일상 속 여러 요인을 통해 프탈레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